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GO MR AS 25

LG아트센터 서울 2025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5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5

2025.4.5 - 11.16

LG SIGNATURE 홀	
김선욱 &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4.5
연극 '헤다 가블러'	5.7 - 6.8
클라우스 메켈레 & 파리 오케스트라 (piano 임윤찬)	6.13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6.18 - 29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7.4 - 6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부퍼탈 탄츠테아터	11.6 - 9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11.14 - 16

U ⁺ 스테이지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4.7 - 13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	10.16 - 26

LG아트센터 서울의 2025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5'는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일시/장소	2025.4.7(월)-9(수) & 4.11(금)-13(일) U* 스테이지
소요시간	11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공동제작	LG아트센터 × 완성 플레이그라운드

광활한 설원, 하룻밤 사이 펼쳐지는 생의 노래

이자람 신작 ‘눈, 눈, 눈’은 톨스토이의 단편 ‘주인과 하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상인 바실리와 일꾼 니키타가 숲을 사러 나섰다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는 하룻밤의 이야기. 끝없이 이어지는 눈길을 헤매며 바실리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이자람은 ‘사천가(2007)’를 시작으로 ‘억척가(2011)’, ‘노인과 바다(2019)’ 등을 발표하며 판소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특히 ‘억척가’는 LG아트센터 초연 이후 3년 연속 전석 매진과 전회 기립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 그가 5년 만의 신작, ‘눈, 눈, 눈’으로 다시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SYNOPSIS

1800년대 성탄 축제 기간의 러시아의 한 농가. 축제가 한창인 한겨울, 마을 상인회의 상인이자 여러 개의 상점을 소유한 바실리는 고랴츠키노 숲을 사기 위해 썰매를 끌고 길을 나선다. 숲을 매입해 얻을 큰 이윤을 떠올리며 길을 재촉하는 바실리와 그와 동행한 일꾼 니키타, 그리고 이들을 태운 충직한 종마 제티는 두껍게 쌓인 눈길 위에서 계속 길을 잃고 눈발을 헤매며 낭패를 본다. 간신히 도착한 곳은 고랴츠키노 숲이 아닌 이웃 마을 그리슈키노.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길을 나서지만, 해가 저서 더욱 차가워진 눈발과 거세진 돌풍은 더욱 음산하기만 하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알 수 없는 곳에서 길을 잃고 만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늘 갈림길이 나온다.
그때마다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아니, 여기가 훨씬 나아. 아니야, 결국 저기가 맞는 길이야.'
결정적인 순간, 어떤 목소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때론 우린 길을 잃기도 하고, 길을 발견하기도 한다.

판소리 '눈, 눈, 눈' 속 바실리와 니키타, 그리고 제티는 길 위에 있다.
고삐를 쥔 바실리에게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은 가지 마, 그 길은 험해, 잠시 쉬었다가 가, 하룻밤만 자고 가, 아니 가지 마, 멈춰.'
하지만 바실리는 고삐를 놓지 않은 채
오직 하나의 목소리를 따른다.

그저 험악한 날씨 때문일까.
아니면 스스로 자초한 까닭일까.
바실리는 길을 헤맨다.
헤매고 헤매다 마침내 완전히 길을 잃는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바실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야 하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삶의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따르고 있을까.
길을 헤매고 또 헤매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일까.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작가의 글

글 | 이자람

#1

인적이 드문, 길고 긴 계단을 걷습니다.

한 사람이 양손 가득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앞서 오르고 있고, 나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에어팟을 낀 채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문득 앞을 보니, 앞서 가던 사람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종이가방 바닥이 뜯어져 안의 내용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어떤 것은 굴러 내려갑니다. 내 위치보다 더 아래로 굴러가는 물건을 얼른 내려가 집어 들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가며 물건을 흘린 사람에게 갑니다. 마침 가방 안에 내용물을 비운 쇼핑백이 하나 있어 꺼내어 물건들과 함께 건넵니다. 이 행동은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함께 주웠을 것이고, 마침 쇼핑백이 있다면 꺼내 줄 것입니다.

『주인과 하인』을 처음 읽으며 저는 내내 바실리가 싫었습니다. 누가 떠올라서, 누구랑 똑같이 말해서, 누구처럼 욕심이 많아서, 누구처럼 스스로를 너무 모르는 척해서,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위선자여서,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나랑 닮아 있어서.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안 내심 결국엔 바실리가 자신의 무지만큼 벌을 받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내가 원하는 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덮치지 않았습니다(얼마나 더 혹독하기를 바랐던 걸까요!). 오히려 그에게, 그답게-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누군가를 돕는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바실리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잠시 나의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마터그인 하워드와 지혜에게, “바실리는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지!”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워드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선행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지. 조금 전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내게 자리를 양보했어. 그 행위 하나로 그가 천사인가? 아니지, 그건 그냥 인류가 하는 일이야. 바실리가 한 일은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네 명이 있지. 바실리와, 니키타와, 제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너. 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볼 건데?” 지혜는 말했습니다. “나는 참 바실리가 나 같은데.”

고백하자면, 나는 바실리가 나와 닮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자꾸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을 바실리에 대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리로 굳어진 옳고 그름 사이에서 바실리를 한쪽으로 옥여넣으며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인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 인물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단순한 하나의 인간형이 아니라 ‘나 중의 하나’, ‘나 중의 하나의 어떤 순간’들이 겹쳐지는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단정 짓기 어려운 사람들임을 발견합니다.

결국 나는, 참으로 나와 닮은 이 바실리가 수많은 삶의 신호들 사이에서 막다른 곳으로 도착하여 자기다운 방식으로 생애 처음 느끼는 기쁨을 얻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아직 굴러 먹은 인간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길고 이상한 여행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

판소리꾼이 자주 판소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서 있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말에 현혹되어, 또다시 내가 딛고 선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잊은 채 다른 땅의 맛있는 열매에 기웃거립니다. 평생 반복하는 미련한 습관을, 어김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럴 때면, 나라는 판소리꾼이 얼마나 판소리를 좋아하고 잘 다뤄내는지 오랜 시간 지켜봐 주던 지혜가 톡, 한마디 합니다.

"우리, 판소리를 만들어야지."

약 300년에 걸쳐 완성된 전통 판소리를 겨우 30년 사사한 몸이, 제 이야기를 지어보겠다고 두 시간가량 되는 창본을 쓰고, 뜯어 고쳐가며 완성합니다. 약 300년에 걸쳐 여러 소리꾼들이 둘러붙어 제 가진 것을 잔뜩 부리며 완성을 거듭해 온 높은 수준의 판소리 음악성을 흠모해온 몸이, 제가 쓴 두 시간가량의 대본에 할 수 있는 음악적 재료를 총동원하며 글자에 생명을 넣어보겠다 애를 씁니다.

때로는 300년의 시간 앞에서 너무, 너무, 너무 초라함을 느낍니다. 웬지 전통 판소리를 흠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너 같은 소인(小人)이 판소리를 한바탕 써내느냐'며 힐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기댈 곳 없다고 생각될 때면, 한국의 전통 예술이 자유롭게 꽃피던 조선시대를 훑쳐봅니다. 18세기 소리꾼들은 어떻게 소리를 짓고 연희했는지, 19세기 소리꾼들은 어떻게 자기 **더늠***을 만들어 자유롭게 공연했는지 옛 사료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분명 이 소리꾼들도 제 머무는 방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미친 척하며 새로운 더늠을 만들어 봤을 겁니다. '이게 되려나?' 의심하며 장단을 복잡하게 얹어가며 가사를 붙여봤겠지요. 이들도 괴롭게 지내다가, 어느 잠깐의 자유로운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이야기에 자신만의 수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상을 하며 전통 판소리를 곱씹으면, 음(音)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김새***의 모양들이 모두 참 예사롭지 않은 시도들이었음을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판소리를 잘 사랑하고 잘 가지고 놀면 그걸로 되겠지요.

창작을 합니다만 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판소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놀음을 지켜봐 주러 걸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늠 소리꾼이 새로운 가사나 선율을 창작해 전승되어 오는 판소리에 삽입한 것

*시김새 선율의 앞뒤에 붙는 장식음, 혹은 여러 음이 빠르게 연주되는 것

이자람과의 인터뷰

인터뷰, 글 | 송수찬 (LG아트센터 공연기획팀)

길을 떠난 두 사람이 눈길에서 길을 헤매다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원작 「주인과 하인」. 작품 속 인물들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숨은그림찾기처럼 느껴진 이자람은 이 이야기를 판소리로 풀어보기로 결심했다. 수없이 반복된 대본 수정과 작창 작업의 막바지에 이른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작창* 과정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지

‘노인과 바다’ 때부터 전통 판소리 양식을 적극 수용해 북과 재담, 소리만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바탕소리***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탕소리에서 소리꾼은 오로지 재담과 소리와 **너름새***로, 고수는 북장단으로 관객을 만나야 한다. 5년간의 ‘노인과 바다’ 투어 경험을 통해, 바탕소리로 작품을 만들 때 대본 - 작창 - 대본 수정 - 작창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며 꼼꼼하게 작업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체득했다. 이런 이유로 4개월 남짓 진행된 ‘눈, 눈, 눈’ 대본 및 작창 작업 기간 내내 매일 마감에 쫓기듯 수정을 거듭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그 결과 이전 작업보다 다양한 유형의 선율이 곳곳에 활용되었으며, 극적 상황을 돕는 장단 활용도 장면마다 촘촘하게 배치했다. 더불어, 작창된 소리를 소리꾼이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원작을 처음 읽으면서, 그리고 이 작품을 판소리로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작품 속 인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혹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같은 명제를 점검하며 살지 않는가. 결국, 내 안에 정리해 두었던 것들을 해집어 엮고서야 다시금, 마치 처음부터 걸음을 떼는 기분으로 인물을 만나고 이야기를 붙들 수 있었다. 작창은 대본이 나와야 시작할 수 있기에,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많이 급해졌다. 역시나, 어려워했던 장면들의 사실이 가장 늦게 나왔고, 다른 장면들에 비해 작창 시간도 배로 걸렸다. 하지만 이렇게 빚어진 장면들이 결국 가장 애착이 가고, 자랑하고 싶은 장면들이기도 하다.

외국 고전을 재창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평소에 한국 소설도 즐겨 읽는다. 재작년 한 해 내내 읽었던 『토지』와 같은,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에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한국 소설 속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이다. 판소리의 표현들은 이야기를 좀 더 내 피부에 가깝게 닿아오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완전히 가까운 이야기들을 판소리에 담아내면 관객에게 부담스러운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내가 몸담은 사회나 내 삶과는 공간과 시간의 거리가 있는 외국 작품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과장되게 표현할 때도 관객이 부담스럽기보다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녹음한 소리를 다시 들어보며 점검한다. 그다음, 대본을 수정하거나, 작창한 부분을 직접 불러보거나, 새로운 작창을 진행한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에 대해 고민하는데, 때로는 화장실에서 영감을 얻고 생각이 정리되기도 한다(가장 좋은 영감의 공간이다!). 또한 ‘눈, 눈, 눈’을 연습하기 전에, 전통 판소리 ‘심청가’와 ‘춘향가’ 연습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연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리를 쓰는 과정에서 막힐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막히는 순간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 다닌다. 괜히 강아지 물도 한 번 갈아주고,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땀짓을 하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안 풀리던 수학 문제를 풀듯 녹음했던 것을 들어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씩 새로운 방법들이 떠오른다.

본인이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마치 구도자의 수행처럼, 판소리는 높은 경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관객은 물론, 판소리를 오랫동안 연습해 온 나조차도 판소리가 막연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치 극과 극에 있는 범접하기 어려운 예술과 일상의 친숙한 서사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 시원하게 충돌하는 느낌이다. 그 충돌이 주는 짜릿함이 판소리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다 보면 자꾸 내 안의 어떤 정체성을 모르는 척하거나 미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작업에 임하는 일은, 내가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치부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과정과 닮아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이번 작품은 내게 그랬던 것 같다. 모든 작창 작업을 마치고 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쪽 붙러본 날, 바실리의 마지막 대사를 내뱉은 후 녹음기를 끄고 연습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와 줘서 참 고맙고 다행이었다. 이 순간이, 그리고 이 작업이 내게 선사해 준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선물을 이제 관객에게 나눠주고 싶다.

작품을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공연 티켓이 오픈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이 늘 놀랍고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고, 그 꿈속에서 나는 마음속의 물살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애쓰게 된다. 지금은 그저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 달콤한 꿈에 보답할 수밖에 없다.

*작창 판소리 장르에서 ‘작곡’을 일컬음. 즉, 가사에 선율과 리듬을 붙여 소리로 만드는 일을 뜻함.

*바탕소리 판소리 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바탕 부르는 것. 본문에서는 전통 판소리의 구성 요소와 연희 양식으로 작업한 ‘창작 판소리’를 구분하여 지칭하는 데 사용.

*너름새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가락이나 사설의 극적인 내용에 따라 손, 발, 온몸을 움직여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



함께 만든 사람들

원작 레프 톨스토이 「주인과 하인 (Master and Man / Хозяин и работник)」

작/작창/소리꾼 **이자람**

연출/드라마터그 박지혜

무대/조명 여신동

고수 이준형

드라마터그/고문 하워드 블래닝(Howard Blanning)

의상 디자이너 박소진(asmblehalf)

무대감독 박수예

음향감독 장태순

조명 슈퍼바이저 **홍유진**

조명 오퍼레이터 윤혜린

기획 최보운

주최/주관 LG아트센터, 이자람

공동제작 LG아트센터, 완성 플레이그라운드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프로젝트

LG아트센터 서울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마곡지구에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LG아트센터장

이현정

공연기획팀

팀장 신민경

김주연 김다솜 송수찬 김호연 정서영

대관·하우스 김철원 김효원 허윤정 옥가희

홍보마케팅팀

팀장 김지인

오경은 오지수 김유리 황정연

디자인 신미현

티켓 배윤정 류선주 김나연 김아영 김수정

운영팀

팀장 양영수

김순자 김홍연 김지훈 안태훈 염인호

무대기술팀

팀장 엄성기

무대 홍지웅 송경근 배완수 박승철 윤해성

이유리 황은주

조명 전영진 류대경 류한경 이준현 김우연

음향 이범훈 엄준석 오성범 박세환

제작지원

무대 크루 이광익 박재홍

LG아트센터 서울

고객 만족도 조사



관객 여러분께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 기간 ~ 4/30(수)

기프트콘 발송일 4/30(수) 이후 순차 발송

* 본 설문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참여 인원 마감 시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U* 스테이지는 새로운 형식과

창의적인 콘텐츠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고객의 일상에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플러스의
브랜드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SPONSORED BY



보이스피싱 안심 AI 에이전트 익시오

 LG U+

